하나님의 현실 되심 패스하기

(사무엘상 11:1~15)

1.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 치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2.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3.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4.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5.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6.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7.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8. 사울이 베섹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 명이더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현실 되심 패스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의 현실 되심 패스하기'

암몬 사람은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이 왕정체제로 가기 위해 왕을 제비뽑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정체제가 정비되기 전의 과도기적 상태를 틈타서 요단 동편의 야베스에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침공을 받고 나서 이레 동안의 말미를 얻습니다. 암몬은 야베스 지역만을 점령하기보다는 정비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여서 대파하고 싶었던 오만함과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고, 일주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게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을 허락했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와서 그 소식을 전하자 기브아 사람들이 울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사울의 모습이 이상하고 눈에 띄는 부분입니

다.
‘사울이 암몬 족속이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이레 동안 말미를 주며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눈을 빼고서야 평화조약을 맺겠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을 듣고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크게 노가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면서 사무엘과 사울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의 재산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암몬을 격파합니다.
이제까지 사울의 모습을 보면 처음 사무엘과 대면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냐이까’라고 이야기 했는데 여기까지는 겸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 뒤로 기름부음을 받고 세 가지 징조를 경험하는 과정을 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현실이 되셨습니다. ‘현실이 되셨다’는 것은 글자의 의미대로 옥구슬을 갈아 빛이 나듯이 마음의 시선을 빼앗아서 마음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세상 것이 현실이었으므로 어둠에 묻혀 계시던 하나님께서 기름부음과 세 가지 징조의 과정을 통해 사울의 마음에서 1등을 하는 현실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왕이 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해 놓으시고 제비뽑기를 해서 사울을 왕으로 만드십니다. 그 때에 이미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까지 했기 때문에 마음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분명히 믿었을 것인데,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에 아무리 찾아도 사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짐보따리들 뒤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고 하십니다. 그 짐보따리를 헤치며 찾자 장대같이 큰 사람이 쭈그리고 숨어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라고 합니다. 그 때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제 왕이 되고 왕정국가로서 제도를 정비하고 나라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합니다. 5년 동안 대통령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도 당선이 되고나면 정권인수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정권을 세우고 정치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왕이 없었던 민족에게 초대 왕으로 뽑힌 사람이 소를 몰고 밭을 갈다 돌아오다가 암몬의 침략 소식을 듣고 딴 사람처럼 돌변하는데 7절에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고 앞장서서 암몬과 싸워 그들을 대파하는데 어떻

게 이렇게 돌변했냐는 것인데 그러나 사실은 돌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본 짐보따리들 뒤에 숨어있던 모습, 왕으로 뽑힌 자기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자들에 대해서 침묵했던 그 모습, 왕이 되고도 소를 몰고 밭을 갈던 모습이 암몬을 무찌르는 모습과 전혀 별개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만 암몬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암몬을 무찌르자 백성들이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라고 할 때에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의 관계에서 기름부음과 세 가지 징조를 통하여 사울의 현실이 되셨습니다. 가장 빛나서 마음을 차지하는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빛나는 것'은 원수도 마음에 보이면 빛나는 것이고 원수가 현실인 것인데, 하나님이 현실이 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울이 현실이 됩니다. '사울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마음에 담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왕이 된 사울이 해야 했던 일은 자기 자신의 현실이 되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라도 백성들에게 패스하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소를 잡아 각을 떠서 보냈고 병사를 소집해서 암몬을 이겼음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했던 것인데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현실 되심을 백성들에게 패스한 사건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현실이 되시는 것이 선민이며, 선민이 사람들을 만날 때에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의 현실 되심을 접촉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내게 현실이신 하나님을 패스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울의 세 가지 태도를 통해 나타났는데 첫째, 왕을 뽑는 제비뽑기를 할 때에 사울이 짐보따리들 뒤에 숨었던 것입니다. '짐보따리들'은 제비뽑기를 위해 왔던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과 집안의 대표들이 모일 때 짐을 지고 왔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제사 지낼 것 등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는데 '그 가운데 숨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제비를 뽑으면 자신이 왕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자기가 빛을 발하면서 가득 채워지고 담겨지는 현실이 될 것을 압니다. 공공의 적이 되어 미움과 비난의 대상으로 마음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마음에 담기는 것은 꿈에서나 바랄 일인데, 누가 나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좋아하고 기억합니다. 누구나 그런 것을 바라기에 스님이나 목사님들조차도 스타 스님, 스타 목사님이 생기는데 그 스님, 그 목사님이 좋아서 마음에 담습니다. 그러니 일반 대중들이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현실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된 사람들은 누

군가 자신을 마음에 담는 것을 짐스러워하고 또한 자기가 짐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현실이 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들어가서 현실이 될 때에 내 마음의 하나님과 그 사람 마음안의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비교할 때 나를 담고 있는 사람의 형편은 나를 아무리 좋아할지라도 결국 나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이 세상 모든 무게를 벗어나서 하늘로 날아가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행16:17절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귀신들린 여종이 그들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높이자 그것을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내 마음속의 하나님이 아닌 나를 좋아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내가 사람을 만날 때에 내게 현실이 되신 하나님이 패스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울이 자신을 멸시했던 불량배들에게 잠잠했던 것입니다. 첫째 경우에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해서 팬이 되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비난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님의 현실 되심이 패스 될 수 있을까요? '잠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먹고 비난당하는 상황을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욕을 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그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이 되셔서 현실이 되실 때에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다. 그 분 앞에서 나 스스로를 볼 때에 절대 다른 사람의 비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을 남의 일처럼 여길 수 없으면 하나님의 현실 되심을 패스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좋아하고 칭찬하는 것도 고통스럽게 여기고 나를 비난하는 것도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울이 겸손이나 인격적이고 심리적 차원의 대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현실이 되신 관계 속에서 결과 되는 열매로 맺혀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추함과 더러움과 모자람과 서글픔이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어떤 비난과 모욕과 멸시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나의 악함과 추함과 어설픔을 적중시킬 만큼 강하게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비난과 중상모략과 욕과 멸시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현실로 모신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나를 볼 때의 악함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비난을 하더라도 대응할 동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악함이 보이지 않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현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면 발끈합니다. 요새 인터넷에 악성댓글이 많은데 그러한 댓글이 아무리 달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볼 때에 느끼는 악한 평가보다 더 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번제는 어떻게 보자면 세

상에서 가장 지독한 욕설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자라'는 하나님의 시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자에게 합당한 자리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것은 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어설프고 가장 못돼먹은 자라고 날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비난하고 모욕할지라도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자를 나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현실 되심이 패스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소 몰고 밭을 갈다가 오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스라엘이 왕정체제로의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왕권을 공고히 해야 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국내외의 정세를 연구하고 분석해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뜻이 맞는 인재를 등용하는 등의 굵직한 나랏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밭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나라의 소식을 듣는데 이러한 마음가짐이 아니면 하나님이 패스 될 수가 없는데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현실이 되신 사람은 참새 두 마리가 죽어서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극히 사소한 것도 지금 내 현실이신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이 되시면 세상에서 말하는 큰 일 작은 일의 구분이 전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되실 때에 스스로 나타나실 것인데, 하나님께 있어서는 참새 두 마리가 떨어지는 일이나 한 나라가 망하거나 흥하거나 하는 일의 난이도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나라가 흥하거나 망하는 것도 참새가 죽는 것보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현실인 사람에게는 오히려 일상의 자질구레한 모든 일도 사명이 됩니다.
한 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에 큰 비전을 갖고 꿈을 꾸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면 노예의 일상에 전념하고, 감옥에 갇히면 죄수로서의 일상에 전념하다가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사울도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 왕으로 발탁이 되고, 다윗은 양을 치면서 다른 형들과는 늘 따로 놀았습니다. 전쟁나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가서 골리앗을 죽이는 대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룻은 먹고 살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여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이처럼 성경의 인물 중에서 원대한 포부, 큰 꿈,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삼성의 총수가 사운을 걸고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현실이 된 아줌마가 설거지 하는 일의 중요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울처럼 하면 됩니다. 중대한 나랏일을 한다는 의식으로 가득차면 일이 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인 사람에게는 오히려 밥해먹고 세차하고 청소하는 것 같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나랏

일의 중요성과 난이도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큰 포부를 가지고 큰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패스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마음가짐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서 현실이 되려고 할 때마다 죽어서 하나님께서 현실이 되시면 당연히 이 세 가지 마음가짐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현실 되심을 패스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게 하나님이 현실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 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럼으로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현실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패스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